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 방한 관광 돌파구 찾는다(Ⅲ)

- 9. 7. 문체부·국토부, 양양공항에서 세 번째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 개최, 강원권 관광-항공 연계 해법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9월 7일(월) 오후 3시, 양양 국제공항에서 세 번째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지방공항을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대표 관문으로 만들고, 공항과 인근 지역을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가 이어지는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양양공항 현주소 진단, 노선 유치에서 ‘도착 이후의 여행’까지의 해법 모색

이번 포럼은 4월 대구, 5월 김해에서 열린 포럼에 이어지는 세 번째 포럼으로서 양양 국제공항 현장에서 열린다. 관계기관이 국제선 여객 회복이 더딘 양양공항의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외래관광객을 강원권으로 유입·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포럼에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방한 거점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연계 도시(춘천시·강릉시·속초시) 단체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관광재단, 한국여행업협회(KATA), 항공사, 여행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옥 부연구위원이 ‘양양공항 인근 관광권 관광-항공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방한 관광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외래관광객의 강원권 유입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짚고 양양공항을 강원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문체부와 국토부가 관광·항공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여행업계와 항공사는 강원권 방한 관광상품 개발 현황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지방정부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여행업협회, 강원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공유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노선 유치부터 공항과 관광지 간 교통, 지역 수용 태세, 관광콘텐츠, 홍보·마케팅, 업계 애로사항까지 외래관광객의 여행 전 과정에 걸친 현안을 점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업계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고 기관별 역할과 실행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대구·김해·양양 포럼 발굴 과제 지속 논의, 11월 대국민 토론회 의견 수렴 등 결과 정책에 반영

문체부와 국토부는 대구·김해·양양 포럼에서 발굴한 과제를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관광-교통 정책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11월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지방공항 활성화와 외래관광객의 지역 확산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관광-교통정책협의회) 양 부처 실장급 주재, 관광-교통 정책 책임자 총 10명 이내 구성·운영('26년 5월~)/국가관광전략회의 과제 이행 점검 및 안건 발굴, 현안 논의·해결

문체부 김대현 차관은 “양양공항 현장에서 지역과 항공·여행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 과제로 연결할 것”이라며, “항공편을 유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항에서 관광지로의 이동과 관광상품, 강원에서의 체험과 소비까지 하나의 여행으로 이어 외래관광객이 강원에도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들의 양양공항 신규 취항을 적극 지원하고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항 내 외국인 이용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하는 등 양양공항과 지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Ⅲ)’ 개최 개요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진희 (044-203-2870)
		담당자	사무관	정유진 (044-203-287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진훈 (044-201-4204)
		담당자	사무관	정희영 (044-201-4189)
담당 부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자	부연구위원	손신욱 (02-2669-8485)



□ **추진목적**

- 지방공항 연계, 외래객 유입 확대를 위한 인근 관광권 내 개선과제 발굴
- 외래객 증가 등 관광활성화 성과 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

□ **회의개요**

- (일시/장소) 9. 7.(월), 15:00~17:30 / 양양 국제공항 1층 국제선 도착장
- (참석자) 2차관(주재), 국토부, 지방정부(강원권), 유관기관·업계 등 60여명
 - 문체부(관광정책실)-국토부(항공정책실)/강원·양양·속초·춘천·강릉 단체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관광재단(RTO), 한국여행업협회(KATA), 항공사(LCC), 여행업계 등
- (주요내용)
 - (발제) 양양공항 및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 (발표) 관계기관별 역할 및 지원 계획
 - (토론) 관계기관별 현안 점검, 역할·건의 사항 조정

—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요소> —

△지방공항 인프라(슬롯, 편의서비스 등), △지역 수용 태세(지역숙박, 교통 등),
△지역관광콘텐츠(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홍보·마케팅(관광상품개발, 프로모션 등), △업계 애로사항 등

□ **주요일정**

시간	구분	내용	비고
15:00~15:05(5분)	개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문광연
15:05~15:20(15분)	인사말씀	▷ 문체부(차관), 강원도(부지사), 양양군(군수), 속초시(시장), 춘천시(부시장), 강릉시(부시장)	-
15:20~15:30(10분)	발제	▷ 양양공항 인근 관광권 관광-항공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문광연
15:30~17:10(100분) (기관별 5분)	관계기관 발표	▷ 관계기관별 역할 및 지원 계획 ▷ 인바운드 주요 관광상품개발 현황과 과제	지자체 등 참석기관 여행사 및 항공사
17:10~17:30(20분)	종합토론 및 정리	▷ 기관별 현안 점검, 역할 조정 및 회의 정리	참석자